

건강·의료

노인 5명중 4명 '노인질환'

■ 예방 이렇게...

“많이 웃고 많이 놀고 적게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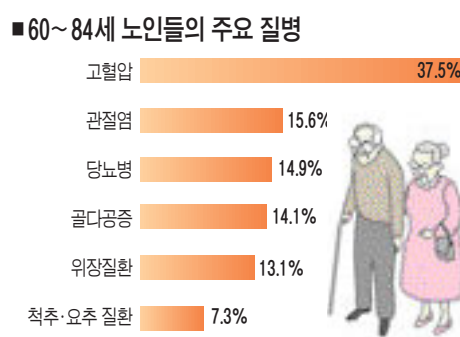


최수용 첨단실버병원 원장이 12일 병원 회진 중 입원 환자를 상대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병원에서의 불편한 점을 묻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5명 가운데 4명이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4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노인이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골다공증 ▲위장질환 ▲척추·요추 질환 순이었다. 이처럼 노인들이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것은 노년기의 경우 생리적 회생력이나 예비능력이 크게 떨어져 질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쉽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인병의 경우 진단에서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청·장년기와 전혀 다른 개념과 방법으로 접근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첨단실버병원 최수용 원장을 통해 노인병에 관한 예방법 등을 들어본다.

고혈압>관절염>당뇨병>골다공증>위장질환 順 1년 1회 건강검진...운동·가정 화목이 최고 보약

◇노인병(老人病)이란? =노인에게 잘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말,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중풍, 빈혈, 경년기 장애, 노인성 치매, 변형성 관절염, 백내장 따위가 있다. 노년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노인병 환자는 65세 이상의 연령 층으로 정의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기능장애를 가진 만성적 장애와 질환을 가진 환자도 노인병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노인, 약물 치료=노인들의 약물 부작용은 젊은 층에 비해 훨씬 많고 심하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약물을 자주 복용하기 때문이다. 잦은 약물 복용은 근육과 혈액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지방의 양을 늘려 약물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아스피린, 일부 기관지 확장제, 혈액응고 방지제, 신경안정제 등이 두드러진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이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은 2개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다 약물간의 상호작용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인 노인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할 때는 ▲정확한 진단 후 복용 ▲용량·용법을 정확히 알고 쓴다 ▲소량부터 복용 ▲간단한 복용방법 선택 ▲전문의의 경험과 지식을 따른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식사요법=미각과 후각이 후퇴하고 치아상태가 나쁜 노인들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소화기능도 감소하게 돼 규칙적이고 균형적인 영양섭취가 필요하다. 우선 칼로리 섭취량을 신경써야 한다. 젊은이들보다 기초 대사량 5%, 활동에너지 200kcal정도가 줄기 때문에 활동량에 따라 세심히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등의 특정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환자끼리 식품을 편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특정 영양소 부족이나 과다가 인간의 노화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맞게, 골고루, 제때에'라는 식사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심리적 대응=노인들은 이미 오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심리적 상황에 의해서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해 긍정적인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자연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질병의 발견과 치료,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에 대한 배려를 하는 한편 가능한 많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다. ◇노인의 운동=식사 1시간 뒤 시작하는 게 좋다. 피로·속취면 삼가야 한다. 중년 이후에는 비만이 시작되고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근육의 힘도 떨어져 손아귀의 쥐는 힘은 20% 이상, 다른 골격근의 힘은 40% 이상 감소한다. 심장의 힘이 떨어져 폐활량이 줄어든다. 모세혈관의 탄력이 줄어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의 반사작용도 느려진다. 70대 이후에는 평형감각도 둔해져 손발력이 필요한 운동에는 적응하기 어렵다. 척추관절과 무릎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운동을 하던 당대사 개선, 지방과다축적 방지, 근력과 탄력의 향상, 심장의 수축력 증가, 우울과 불안감 개선 등 이점이 많다. /최권길기자 cki@kwangju.co.kr <도움말=첨단실버병원 최수용 원장>



첨단 실버병원 입원 환자들이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최권길기자 choi@kwangju.co.kr

노인질환 전문 '첨단실버병원' 개원

호남 첫 요양·재활치료 병행 양·한방 협진...154병상 규모 간병사 24시간 밀착 서비스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요양과 재활치료를 겸한 병원이 문을 열고 진료로 시작했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교통공원 인근에 문을 연 첨단실버병원(병원장 최수용 의학박사)은 ▲치매·뇌졸중 클리닉 ▲재활의학 ▲한의원 ▲사회복지 ▲영양과 등과 긴밀한 협조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건평 1천500평에 154 병상(VIP실·2인실·부부병실·다인실)을 갖춘 이 병원은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이 개설돼 양·한방 협동진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이 병원의 자랑거리다. 또한, 여러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접근 치료법을 통해 노인당뇨·노인성 골다공증·노인 감성질환·영양결핍·노인성 고혈압·노인 호흡기 질환·위장병·관절염·치매·뇌졸중·배뇨장애 등의 노인병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른 병원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재활치료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의 전문 면담을 통해 병원 입원 환자들이 사회·의료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사 또한, 노인환자의 기능 평가 및 최소 영양평가를 해 환자에 알맞은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어린이 교통공원에 위치한 이 병원은 도심 속 공원과 녹색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웃음요법 ▲희소요법 ▲실버음악회 ▲이야기 치료 ▲히브치



호남지역 최초로 중풍 재활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조 진료를 하는 첨단 실버병원이 지난 2일 개원했다. /최권길기자 cki@kwangju.co.kr

로 ▲작업치료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설해 노인들의 편안한 재활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병동 운영을 통해 각 병실 전문 간병사가 24시간 밀착 간병서비스를 하고, 퇴원 환자를 위한 가정 간호 진료팀도 구성해 가정에서도 입원실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기치료실과 보청 및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운동치료실, 근육의 긴장완화를 위한 수치료실 등을 운영중이다. 또한, 일부 병실에 돌침대 및 목재 침대를 사용하는 한편 전 병실에 산소 공급 시스템을 설치해 환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최권길기자 cki@kwangju.co.kr

부광공인중개사 (064)654-4520... 전원주택지 분양 대행 <부른호수, 푸른숲속, 전원마을> 소재지: 화순군 동면 서성리 단지면적: 7,000평(약30필지) 분양면적: 200평 단위 분양시기: 3월8일부터 선착순 세금혜택: 1기주 2주택 무관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식당, 입식, 핫집,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토지매매, 분양, 임대, 투자

금보부동산컨설팅 011-602-2233... 식당매매, 프랜차이즈, 부동산, 건물매매, 토지매매, 분양, 임대, 투자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매매상담형-사업투자-건물-자산투자 등... 모 집, 실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십니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증개... [건물] [토지] [급히 팝니다]

(주)옥션코리아 법원 경매 222-8446... 아파트, 주택, 토지, 건물, 차량 등 다양한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